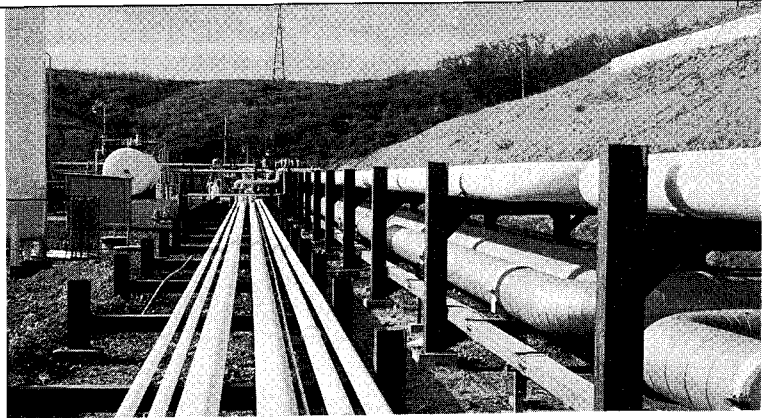


(株)油公가스를 찾아서



〈蔚山기지〉

국내LPG 수요 33% 공급하는 큰 역할 담당

(주)유공가스는 1985년 12월 政府의 국내 LPG 需給安定對策 및 LPG 수입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가스판매업계의 持分 참여에 따른 제 2공동 수입회사로서 설립되었다.

설립이후 2년여에 걸친 地下저장기지공사와 함께 1988년부터 본격적인 LPG 수입·판매사업을 실시한 결과 1991년 말 현재 국내 LPG수입수요의 49%(국내 총수요의 33%)를 공급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소득증대와 함께 淸淨 에너지源으로 인정받는 LPG의 수요증가 추세는 국민생활향상 및 산업발전에 대한 유공가스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LPG 공급상의 안전확보라는 책임도 증대되었다.

국내 LPG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소비자의 인식속에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가운데 油公가스의 사업활동 등에 대해 알아본다.

國際 LPG 市場現況

80년대 이후 세계 LPG 산업은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1980년에 9천7백만톤이던 전세계 LPG 생산량은 1990년에는 1억2천5백만톤으로 증가하였고 이와함께 LPG 소비량도 연평균 2.6%씩 상승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LPG 생산능력은 中東

國家들을 중심으로한 일부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소비는 인구 및 산업시설이 발달되어있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생산량의 약 25%는 交易를 통해서 소비되고 있다.

LPG 수출국 중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년 1천3백만톤 규모로 총수출량의 40%로서 세계제일을 자랑하며 기타 중동국가들을 합하면 이 지역의 수출량은 전체 수출량의 약 60%를 占有한다.

세계 최대 LPG 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서해안의 Jeddah, Yanbu 및 수도 Riyadh의 精油施設과 Ras Tanura에서 생산되는 LPG를 國營石油會社인 SAMAREC社(Saudi Arabia Marketing & Refining Company)를 통해 세계 각국에 공급하고 있다.

그외에 아부다비(UAE), 카타르 등도 LPG를 수출하고 있으며 GULF전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됐던 쿠웨이트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출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동국가들은 대수요처인 極東지역과 유럽의 중간에 위치하여 국제 LPG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그밖에 극동지역을 주 수출시장으로 하는 국가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가 있으며 유럽국가들에 대한 주 공급처로는 아프리카의 알제리 가스田 및 영국 북해油田을 들 수 있다.

LPG의 생산은 유전에서 原油生産時

에 함께 생산되는 형태(수반가스: Associated Gas)와 가스전(田)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분리하여 LPG를 회수(回收)하는 형태(비수반가스: Non-Associated Gas)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유공장의 정유과정에서도 LPG가 생산되고 있다. 한편, 세계 LPG시장의 주요 수입국으로는 일본을 들수 있는데 일본의 연간 LPG 수입규모는 1천5백만톤으로서 전세계 수입수요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극동지역과의 LPG교역은 일본을 주 고객으로 하여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수송측면에서도 67척의 전세계 LPG 輪送船중 48%를 일본 국적의 船團이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도 최근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한국을 비롯한 대만, 싱가포르, 인도 등의 LPG 수입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 지역의 LPG 수입규모도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제 시장에서의 LPG 가격결정은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우디의 정부공시가(GEP: Government Established Price)로 대표되고 있는데 이는 원유 수출가와와 熱量等價대비 구조식이어서 原油價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런데 최근 GULF 사태이후 LPG공급물량의 제한으로 현물시장의 LPG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GEP에 이들 현물시장의 프리미엄을 일부 반영한 새로운 가



淸淨에너지 擴大추세와
에너지源 多元化 정책 따라
사업확장 전망 밝아

〈수송탱크로리〉

LPG 공급의 안전확보 책임도 동시에 증대

격제도인 SP(Samarec Price)를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제 LPG시장은 그 수출지가 몇몇 나라에 집중되어 있고 각국의 소비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Seller's Market이 형성되고 있다.

1990년 8월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GULF 사태는 국제 LPG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준 사례이다.

事態勃發前 톤당 \$90 수준으로 거래되던 LPG 가격이 최고 \$240까지 급등하게 되었고 당시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인 KPC(Kuwait Petroleum Company)의 주요 구매자이던 유공가스는 당해년도 총수입량의 34%에 달하는 연간 40만톤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LPG 신규 도입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그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연간 40만톤의 長期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국제 LPG 시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장 지배력을 한층 강화시켰고 수입국들은 시장 다변화(多邊化)를 의식하면서도 늘어나는 LPG 수요에 대한 물량확보의 요청으로 중동 수출국에 더욱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 「카타르」의 수출확대와 함께 하반기 이후 「쿠웨이트」의 輸出再開로

공급물량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한 중동국가의 시장지배력(支配力)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國內 LPG 需給現況 및 展望

국내에서 LPG가 처음 생산된 것은 1964년 大韓石油公社 울산 정유공장의 가동에서 비롯되는데 당시 연간 600톤이던 국내 LPG 소비규모가 1980년에는 40만톤 1991년에는 358만톤을 넘어서고 있어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국내 LPG 산업도 급성장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産業化와 都市化가 진행되면서 국내 무연탄 생산의 한계 到來와 국민의 청결하고 편리한 가스 연료사용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국내 LPG 수요는 80년대 이후 매년 약 2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국내 LPG 생산능력은 '91년 기준 115만톤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생산량의 2배가 넘는 연간 243만톤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에너지원 多元化 政策에 의한 LPG보급(普及) 확대방침에도 불구하고 1995년까지는 평균 10% 내외의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LPG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유공가스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 LPG는 민생 연료로서의 수요뿐만 아니라 石油化學공업원료인 납사의 대체 원료로서도 그 경제성을 인정받아 1992년에는 약 60만톤의 수요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 부분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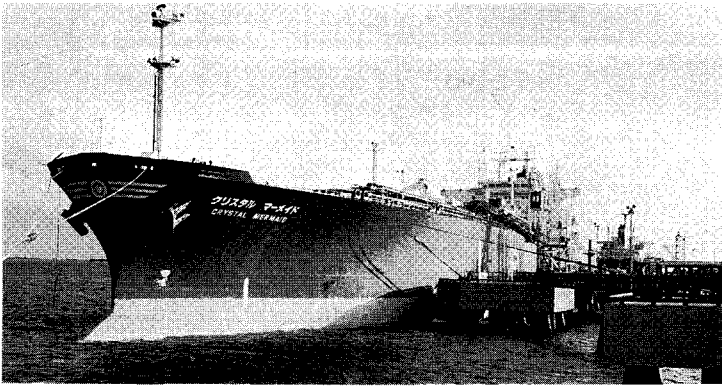
油公가스의 경영정책

이와같은 국내의 LPG 시장환경에 따라 油公가스는 다음과 같은 經營政策下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LPG 需給安定의 示顯이다.

늘어나는 LPG 수요에 대해 수급안정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유공가스는 울산에 세계에서 가장 큰 27만톤 규모의 地下巖盤 저장기지 이외에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에도 추가로 기지건설을 계획하여 저장능력의 확충을 검토하는 등 수급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도입측면에서도 장기공급계약의 확대로 도입안정을 기하여 '91년중 연간 40만톤의 신규도입계약 추진에 이어 '92년에도 연 60만톤의 추가계약을 계획하고 있으며 겨울철과 여름철의 계절적 수요차이에 대해서는 現物購買과 沿岸輸出로



유통구조의 개선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가스 가격구조 개선도 과제

〈中東으로 부터의 가스 수송선〉

民生연료 및 「납사」의 대체연료 등 選好度 증가

서 물량부족분과 잉여분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2. LPG 需要開發과 流通構造改善의 推進이다.

지금까지의 민생용 LPG 소비는 프로판의 경우 주로 容器에 의한 취사용과 수도관 이외의 도시가스 연료로서 대부분이 소비되고, 부탄은 영업용 택시연료로 소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판과 부탄의 국내 수요구조는 7:3의 비율을 유지하는데 반해 국내생산은 이 비율이 2:8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수입구조는 이러한 비율을 감안하여 도입되어야 하나 장기 수입계약은 대부분 6:4의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요와 공급 구조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어렵게 확보한 물량중 부탄은 일부를 다시 海外處分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유공가스는 1989년부터 부탄용기를 內藏한 캐비닛히터를 국내에 처음으로 보급하기 시작하여 국내 최초로 LPG 수요구조 개선노력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석유화학 원료용 부탄공급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91년에는 세계최첨단의 부탄 容器充塲所를 울산기내에 건설하고 소비자에게 완벽하게 안전이 보장된 부탄용기를 공급하여 용기공급체계를 개선

하였으며, 현재의 LPG유통구조가 복잡하고 零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개선하고 점증하는 수송난을 고려하여 1톤 내외의 소형탱크를 설치하고 集團供給을 실시하는 SAMLL BULK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3. 事業多角化의 推進이다.

세계 일류의 종합가스 전문회사를 경영목표로 하고 있는 이 회사는 우선 LPG 산업에서의 垂直系列化를 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분야의 사업다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캐비닛히터 등 가스기기사업은 물론 관련사업 다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의 과제

유공가스는 국내 LPG 업계의 先頭 자리를 유지하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몇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국내 LPG공급가격 체계의 개선이다. 현재 가정·상업용(일반용) LPG보다 톤당 ₩44,514씩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 도시가스용 LPG의 공급가격은 수입원가보다도 낮기 때문에 LPG 수입사들이 공급을 扞避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가스 공급의 안정성 확보라는 관점 외에 결과적으로 용기형 LPG 사용자가

도시가스용 LPG 사용자를 지원하고 있는 사회형평의 문제도 갖고 있어 業界와 政府의 공동노력으로 시급히 해결해 가야 할 것이다.

가스安全管理의 확보문제도 중요하다. LPG는 사용하기 편리한 연료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면 取扱上 주의를 기울여야 하면 다른 연료와 마찬가지로 재해를 가져오게 된다.

유공가스는 모든 고객이 안전하게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 安全관리에 대한 투자와 소비자에 대한 안전관리의 제도와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다.

油公가스는 市場自由化 및 對外開放에 대한 對策樹立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LPG 업계는 지금까지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LPG의 안정공급이라는 공익적 사명을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 선진국들의 시장개방 압력이 계속될 경우, 외국과의 경쟁력도 갖추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서둘러야 한다.

위와 같은 제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을때 유공가스는 비로소 세계 일류의 종합가스 회사가 될 수 있음을 임직원 모두가 깊게 인식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00년대 가스산업의 主役으로서 활약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